

일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헤이안시대의 색채관과 복색

음정선*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일본의 헤이안 시대는 이전 시대의 대륙과 한반도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본 고유의 전통 색채관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색채문화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본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어 오늘날 일본 패션에 그 색채적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이안시대의 색채관에 내재된 정신사상과 미의식을 고찰한다.

둘째, 헤이안시대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색채관이 각 예술, 문화와 전통복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피고, 이를 통해 그 독자적 특성을 밝힌다.

셋째, 일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헤이안시대의 색채적 특성을 살핀다.

연구 범위는 일본 헤이안시대의 색채관과 1990년- 2000년 사이 일본디자이너에 의해 4대 컬렉션에 발표된 디자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가 병행되었으며, 문헌연구로는 헤이안시대의 미술사, 민속사, 복식사 등 국내외 문헌들과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실증연구는 헤이안시대의 문화, 예술관련 사진자료, 복식 관련 그림 자료, 패션 컬렉션지 등의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일본의 색채관에 내재된 정신사상으로는 물활론적 신앙, 음양오행, 불교, 선불교, 도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헤이안 시대에는 우아하고 화려한 귀족문화를 대표하는 미야비 미의식이 나타났다.

둘째, 귀족문화로 대표되는 헤이안 시대에는 미야비의 미적 개념을 바탕으로 중색조와 은회색을 중심으로 한 우아한 색채관이 나타난다. 이전시대의 음양오행과 불교로 인한 다채로운 색채와 보색 대비의 사용과는 달리, 외부와의 문화교류가 적어진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 특유의 중색과 간색의 색채들이 나타나면서 독특한 일본 전통 색채관의 기초를 확립한다.

셋째, 일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헤이안시대의 색채적 특성으로는 간색의 사용, 습색의 사용, 중색의 사용을 들 수 있다. 간색은 노랑, 초록, 주황, 보라, 회색 등의 원색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중간색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패션에서도 감각적으로 표현되었다. 습색은 옷을 겹쳐 입었을 때 드러나는 층의 배색을 뜻하며, 현대패션에서는 여러 옷의 형태에 응용되었다. 중색은 걸색과 안색이 만났을 때 합쳐 보이는 색을 의미하며, 현대 패션에서는

* Corresponding Author : eumjungsun@hotmail.com

쉬폰 등의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비치는 특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처럼 이미 세계 패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 현대 패션은 전통을 바탕으로 형태, 디테일뿐만 아니라 색채에서도 그 특성을 찾아내어 그들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연구는 우리 현대 패션의 독창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다.